아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활력팀장
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업무('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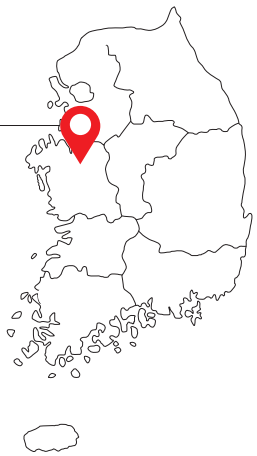
충남 아산시

오민환 농촌활력팀장

충청남도 아산시청 농정과 오민환 팀장은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 및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재생 및 환경개선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며
아산시 농촌마을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민환 팀장의 활동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농정과 농촌활력팀
주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학교 및 농촌현장포럼 추진,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농촌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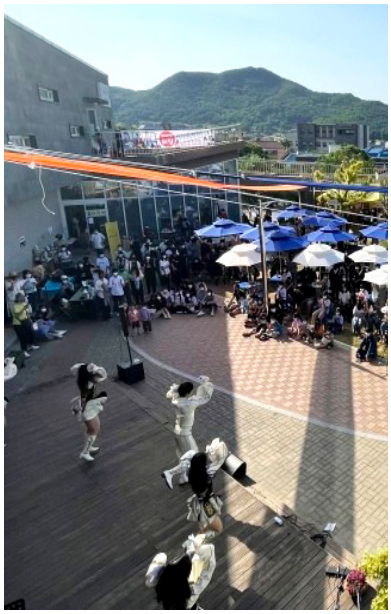


▲농촌현장포럼

“

함께하는 활동가,
함께하는 발전.

”


▲ 지역주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농촌활력 제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입니다. 최근 아산시는 2020년 189,352명이던 농촌지역 인구가 2021년 199,131명, 2022년 210,0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송악면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2021년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에는 아산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 공간 해유사업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만큼 농촌지역발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선정으로 아산시 균형발전 기틀 마련

아산시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산시 서남부 생활권 지역발전의 균형과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도비 262억원 포함 총 사업비 403억원을 투입해 염치읍·송악면·선장면·도고면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시군역량을 강화하며 선장면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농촌협약식

▲ 주민회의

아산시는 맥킨지 리포트 선정 2025 세계 7대 부자도시이자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며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먼저 찾아오는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아산시의 서남부 생활권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민환 팀장은 특색있는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관련 공모사업의 준비를 위해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 시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송악면의 선주민 및 후주민,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는 송악면 지역공동체 발전포럼 개최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체계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완료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 '행정재산 관리운영 기준'(2022년)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2019년),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를 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중간지원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촌협약위원회 정기회의